

학부모교육 만족도 높다

도교육청, 작년 성과 분석 결과 종합만족도 95.6%

프로그램별로 사춘기 자녀이해 교육서 98.3%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서 환경생태교육이 98.8%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운영하는 학부모교육 참여자 10명중 9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학부모교육 운영 성과 분석' 결과 종합만족도가 95.6%로 집계됐다.

교육내용 만족도 95.6%, 강사 만족도는 96.1%로, 이는 지난해 학부모교육에 참여한 8,320명 가운데 3,1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반영하고자 전북교육아

카데미를 비롯해 20개 강좌, 238회의 학부모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부모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사춘기 자녀이해 교육(98.8%)',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97.7%)', '부모성장 달빛학교(96.6%)'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영역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생태교육(98.8%)', '학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97.8%)', '베타버스 타고 우리아이 진로탐색(97.6%)'도 학부모들의 만

족도가 높았다.

특히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자 의견에 따른 '찾아가는 학부모교육'과 하반기 실시한 '초·중·고·대학부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97.1%, 95.2%를 기록했다.

한편 학부모교육 참여자의 90.8%는 여성이었으며, 자녀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재필 학부모교육담당 장학사는 "학부모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올해도 수요자 중심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학부모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4일 호원대학교 총장실에서 김희성 호원대 총장과 남천현 우석대 총장을 포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연구·학술 교류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호원대-우석대, 교육·연구·학술분야 교류 '맞손'

신산업·대학특성화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협력 추진

우석대학교 총장 남천현)와 호원대학교(총장 김희성)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연구·학술분야 등에 대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호원대 총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우석대학교에서 남천현 총장과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 이승미 학생취업처장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이, 호원대학교에서는 김희성 총장과 장병권 부총장 정의봉 교무학생처장 유선

영 교육혁신처장, 신상열 입학홍보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신산업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 △상호 학점 인정 및 학생·교원 활동 교류 △공동 관심 분야 연구 교류 및 학술연구 공동 추진 △시설 및 장비 등 상호 이용 △산학협력 및 대학 연계사업 운영 교류 등이다.

남천현 총장은 "급변하는 대학 환경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대학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성 총장은 "우석대학교가 추구해 온 특성화분야와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은 우리 대학교가 추구하는 이념과 같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석사 1년차 학생 세계 저널 1저자 논문 게재 '화제'

전북대 정하록 대학원생, 신 탄소나노소재 구조 구별 방법 개발 탄소 분야 세계 최고 권위 저널 'Carbon' 최신호에 논문 게재

석사과정 1년차인 전북대 정하록 대학원생(물리학과)이 탄소 분야 세계적 저널에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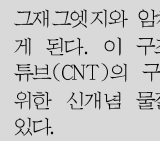
정 대학원생은 탄소 분야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탄소나노벨트와 탄소나노후프를 빛의 파장을 이용한 분광분석법을 통해 가장자리 구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은 탄소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저널인 'Carbon' (IF 11.3) 최신호에 게재됐다. 정 대학원생이 제1저자, 연구책임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김갑필 박사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안상민 교수의 지도를 받아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탄소나노벨트와 탄소



나노후프 구조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돼 원형으로 밀려 있는 구조다. 가장자리 구조에 따라 지



도체와 반도체로 나뉘게 된다. 이 구조들은 탄소나노튜브(CNT)의 구조 정밀 제어를 위한 신개념 물질로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 구조들을 시뮬레이션 기반의 양자화학계산을 활용한 X선 광전자 및 라만 분광을 통해 탄소 나노소재들의 가장자리 구조와 직경의 차이를 스펙트럼 분석으로 구

별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이론적 원리까지 밝혀냈다.

이 연구 성과는 나노탄소소재의 정밀합성 및 분석분야, 나아가서는 나노탄소 기반 촉매 및 에너지 분야 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하록 학생은 "열성적으로 지도해 준 안상민 교수님과 김갑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르게 연구를 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위한 연구가 아닌 나를 위해 쌓아 가는 걸임을 알게 됐다"며 "더욱 매진해 탄소 기반 배터리 및 에너지 연구를 통해 탄소산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유아교육과 교육부장관 기관 표창

전주비전대 유아교육과(학과장 송화진)는 2021학년도 제5주기 유아교육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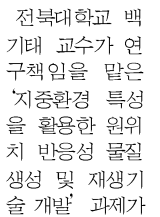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중 9개 대학만이 A등급을 받았고, 호남 제주권에서는 유일하게 전주비전대 유아교육과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전주비전대 유아교육과는 3주기(2014년)평가와 4주기(2017년) 평가 그리고 5주기 평가에서도 3회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실적은 전북 지역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중에서는 유일하다.

송화진 학과장은 "이러한 성과는 유아교육과에 대한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해왔던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과 지원들은 입학과 취업으로 연결돼 호남 제주권 최우수 유아교육과를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연구 환경R&D 우수성과 20선 선정

전북대 백기태 교수 '지중환경 특성 활용 원위치 반응성 물질 생성' 토양정화 전문기업 에코필에 기술이전... 실제 오염부지 정화 활용



전북대학교 백기태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지중환경 특성 활용 원위치 반응성 물질 생성 및 재생기술 개발' 과제가 2022년 환경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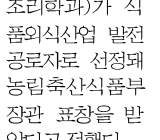
이 연구는 백 교수가 2019-2021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중환경오염연구관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그동안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산화-환원 정화에서 산화제나 환

원제를 화학물질 형태로 외부에서 오염지역에 공급해 줘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환경의 특성을 활용 원위치에서 산화제나 환원제를 생산해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원위치로 생산된 산화제가 효과적으로 오염된 토양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했으며,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 현장 적용성도 확보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기존의 원위치 산화-환원 공정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토양정화 전문기업인 (주)에코필에 기술이전돼 실제 오염부지 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도현욱 교수, 농식품부장관 표창



전주대학교 도현욱 교수(한식 조리학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 교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에서 지원한 한식 전문인력양성기관과 한식 교육기관 지원 사업 '해외 진출 한식조리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며 글로벌 한식 전문 인력양성을 주도했다. 특히, 2010년 이후 한식 조리학과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주

대 한식조리학과를 한식 산업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식 조리 중추 교육기관으로 특성화함으로써 한식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다.

글로벌 한식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한 '해외 파견 한식조리사 양성 교육'에 이어 2018년부터 한식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한식조리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며 다수의 한식조리학과 졸업생을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관제조리사로 키워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현욱 교수는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에서 최고의 글로벌 한식 인재 육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너랑나랑'·'손잡고 걸어가요'

도교육청, 로고송 제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과 함께 '너랑나랑'과 '손잡고 걸어가요'라는 로고송을 제작했다.

초등학생들 목소리가 담긴 '너랑나랑'은 전북교육과 함께 따뜻한 미래를 그리자는 내용을 표현했다. 또 현직 교사들이 부른 '손잡고 걸

어가요'는 전북교육이 항상 곁에서 응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편 전북교육청 전화 통화대기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고송은 앞으로 전북교육 캠페인 로고송 활용 영상 공모전, 로고송 알리기 릴레이 이벤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성하 대변인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의 가치를 담아 제작된 전북교육청의 로고송이 학교현장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일제강점기 유교문화 특징 살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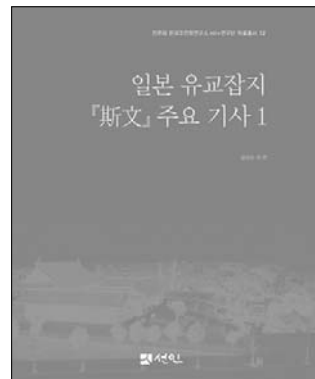
전주대, 자료총서 제12권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최근 자료총서 제12권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집은 방대한 양과 난해한 자료로 연구자들의 활용이 쉽지 않았던 자료를 일부나마 번역·소개함으로써 근대 동아시아 유교 연구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는 일본 근대 유교와 한학, 일본의 유교 단체, 일제강점기 유교문화의 성격 및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한·중·일 유학 및 유교문화의 연구에 귀중한 연구자료로서 향후 학계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주대 HK+연구단은 "앞으로도 자료총서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학계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라며 "우리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공동체를 열 수 있는 다짐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교직원봉사단,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봉사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교직원봉사단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익산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3일 사)술술송지원봉사대와 함께한 '행복한 식사'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식사와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무료급식이 2023년 새해 시작과 함께 대면으로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교직원봉사단장 정현영(한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봉사활동을 이렇게 다시 시작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까지 훈훈해졌다"며, "원광대 교직원 지역경수와 도의실천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대 해양건설공학과

교육·연구·취업성과 '주목'

국립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과 해양건설공학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1996년 학과출범 이후 해양건설공학과이 괄목할 만한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군산대에 따르면 친환경적 해양공간 개발과 스마트형한 건설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1996년 출범한 이 학과(해양시스템공학과)의 교육과정은 국내 해양환경과 사회수요와 부합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해양건설공학과는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시그랜드(Sea Grant) 사업의 전북지역 주관학과로 지정돼 세만금 방조제 공사가 따른 해양물리 해양환경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최근에는 한반도 서남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예측, 해양재난사고 예측, 폭풍해일에 의한 범람 등 지역 안전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연구 군산대 해양건설공학과 학과장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연안과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은 불가피하고, 집중하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연안 개발과 보전 측면에서 해양건설공학과는 미래는 매우 밝다"고 했다.

이어 "해양건설공학과는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공학을 공부하는 학문 분야이므로 해양지질, 해수유동, 건설공학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라고 설명했다. /뉴시스